

盆栽 ②

盆梅 꽃 피우기

한국분재연구원
(0343-43-6367)
원장 안형재



옛 부터 梅花는 文人画家들로부터 그 清真함과 高潔한 品性으로 因하여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中國의 宋나라 사람인 范石湖는 그의 “梅譜” 序文에서 “매화가 天下에 으뜸가는 꽃” 이라고 하였다.

梅花는 봄을 가장 먼저 알려준다고 하여 “一枝春” 또는 “先春” 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수 많은 詩人墨客들이 梅花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冷艷, 清艷 또는 玉雪姿, 冰魂雪骨, 陵雪清香 등으로 形容하였고 추위를 아랑곳 하지 않은 梅花의 性質이 人間의 절개처럼 강하다 하여 貞姿頸質, 蕭疏孤節이라고 代名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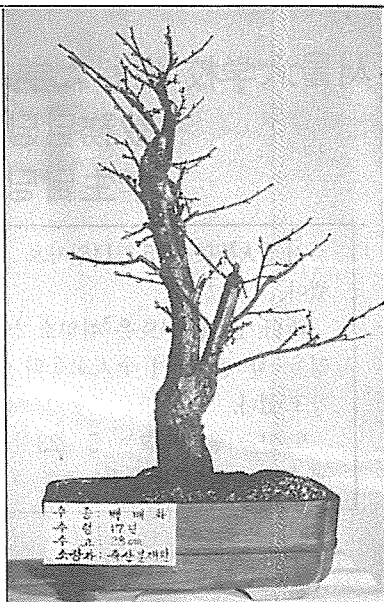
또 그 脫俗한듯한 성격 때문에 花仙, 玉仙, 癡仙, 姑射仙人 등으로 불리워 지기도 한다. 梅花는 위와 같은 俗性때문에 흔히 절개를 지키며 隱居하는 處士(貞士)나 脫俗한듯한 아름다움을 갖춘 美人과 仙人 그리고 人格을 完成한 存在에 비유된다. 그래서 “蘇東坡”는 梅花를 신선과 같이 脫俗한 存在로 끌어 올렸고 “黃庭堅”은 매화를 “梅兄”이라 하여 깊이 사귀는 情을 드러냈는가 하면 退溪 李滉先生은 젊어서 부터 매화를 酷愛하여 매화에 對한100여편의 詩(梅花詩帖: 한국문학사

상 최초의 單一素材 自作詩集)를 남겼다. 그 詩 가운데서 退溪는 매화를 벗으로 삼아 自身의 情懷를 梅花에 하소연 하기도 하였고 主客이 되어 서로 嘖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先人들은 梅花를 書室에 두고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써 마음속의 俗된 기운을 씻어 내고 同時에 德性을 기르는데 一助를 期 하기도 하였다.

現代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盆梅를 가까이서 즐길수 있다면 情緒의 함양은 勿論 仙人의 境地를 自踏할수 있지 않을까 生覺한다.

이웃나라 日本에서는 수백여종의 매화를 원예종으로 改良하여 培養하고 있으나 本院의 附設 竹山盆栽園에서는 우리의 先인들이 즐기던 種만을 번식 배양하고 있다. 梅花는 줄기가 구불 구불 틀리고(龍梅) 가지가 성글고 야윈 것과 늙은 가지가 怪奇하게 생긴 것을 珍貴하게 여긴다. 또한 梅花를 四貴라 하여 ①꽃은 드물게 피고 ②늙은자매 ③ 파리한 생김새 ④화려하지 않는 모습을 特徵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매화를 기를 때에는 반드시 줄기가 뒤틀려 오르도록 해야하고 잔 가지를 많이 내지 말아야 한다. 梅花의 종류로는 백색의 꽃이 피는 백매화와 담홍색의 꽃이 피는 紅梅등이 있으며 半生半枯의 生態가 特異한 植物이기도 하다. 매화는 7~8월에 꽃눈이 형성되어 물 주는 것은 비교적 적게 하는것이 좋다. 보온실에 들여 놓은 매화는 벌써 부터 꽃 망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보온실에서의 분매는 대개 1~2월에 開花하지만 성탄과 신정을 맞이하여 보다 일찍 매화를 즐기려면 차가운 곳에서



기르던 盆梅를 開花豫定日 보다 10일전에 室內(안방, 居室)에 들여 놓는다. 그리고 하루에 2~3회씩 미지근한 물(5℃ 정도)로 나무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고 盆土가 마르지 않도록 1~2일에 한번씩 물을 흠뻑 준다. 이렇게 하면 梅花의 꽃 망울이 점점 부풀어 올라 10일 후면 꽃 망울을 터뜨린다. 일단 꽃이 피기 시작하면 꽃 잎에 물기를 가하게 되면 꽃이 쉽게 저 버린다. 반면 분토에는 하루에 한번 정도씩 물을 흠뻑 준다. 植物은 개화와 결실기에 많은 량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꽃이 70%정도 피게 되면 아직 피지 않은 꽃 망울은 조심스럽게 따 버린다. 마지막 한 송이 까지 꽃을 즐기려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 盆樹가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따뜻한 곳에 너무 오래동안 두게 되므로 휴면을 정지하고 새싹이 돌아 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화가 지고 나면 곧바로 다른 분재들과 같이 아파트의 베란다나 양지바른 곳에 내어 놓고 겨울 관리를 해야 한다.